

# 개 회 사

( 제302회 임시회 )

2022. 7. 11.( 월 ) 10:00 / 의회 본회의장

여러분! 반갑습니다.

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여 첫 임시회를 열고 신 우 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.

302회 임시회는 당면한 각종 조례 재·개정 및 금년 상반기 중,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.

군민들께서는 힘차게 출범한 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에 대해 그 어느때 보다 관심과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.

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평소의 생각과 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고 어제보다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**존경하는 군민여러분!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!**

7월에 접어들면서 가뭄과 폭염, 바다 고수온이 가히 심상치 않음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.

가뭄은 도서로 형성된 우리 지역의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은 물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.

폭염과 고수온은 들과 바다의 노동현장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군민들의 건강과 바다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.

물부족 및 폭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

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.

고난이 닦칠수록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.

지금은 물을 아껴 쓰는 절약 정신과 어르신과 어린이 등 약자를 살피는 이웃사랑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

우리 모두 이웃사랑 실천으로 가뭄과 무더위의 고통을 분담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

이번 임시회도 집행부에서 가뭄과 폭염, **고수온대책**, 피서객 맞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아무쪼록 302회 임시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가뭄과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